



[산업] 역대 최대 실적 게임사 '빅3' 매출 7조시대 기대 08



Life

[라이프] 이마트24 연말, 외인과 함께 올 매출 186% 급증 니



찬반 논란 속 광화문광장 재조성 '첫삽'

시민단체 "무리한 추진", 서울시 "시민과 함께 구상한 미래"

광화문 동측도로 확장·정비 시작 2단계로 나눠 내년 10월 완공 목표 경실련 등 시민단체, 졸속 강행 규탄 서정협 "시민의 목소리 담아갈 것"



광화문광장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위한 첫삽을 뜨겠다고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졸속 강행을 규탄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고자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시는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서측도로는 보행로로 만들어 광장을 넓히고 주한 미군대사관 앞 동쪽 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로 총 791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980억원보다 189억원 감액됐다.

이날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시연대·문화도시연구소를 포함한 총 9

곳의 시민단체들은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의 성과가 되선 안 된다"며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반드시 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여러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같은날 시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여간 시민들과 함께 구상한 광화문광장의 미래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첫삽을 뜬다"면서 "시민의 집단지성은 차로로 단절된 회색 콘트리트 광장,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라는 오명 속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광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나침반이었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시는 4년간 300회 이상의 회의와 토론회를 거

쳐 시민 뜻에 따라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서측광장에 대해 2019년 12월 진행된 시민토론회 300명의 설문결과(64.9% 찬성)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정말 공색하다"면서 "오세훈 시장도 시민 설문결과를 토대로 중앙광장을 결정했는데 이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00회 시민 소통의 성과가 (사업)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인지 서울시는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시민 반대를 무릅쓰고 새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시는 2단계로 나눠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까지 동측도로를 확장·정비하고 같은해 5~10월에는 서측에 공원을 품은 광장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2개 교차로의 신호를 조정, 원거리 차량의 통행량을 도심 외곽으로 분산·우회시킨다. 근거리 차량은 신호 최적화로 교통흐름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으로 변하는 광장 서측엔 시민들

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키 큰 나무 37종 317주와 키 작은 나무 30종 6700주를 식재한다. 또 2698㎡ 면적에 2종의 잔디를 심고, 자전거도로(폭 1.5m·길이 550m)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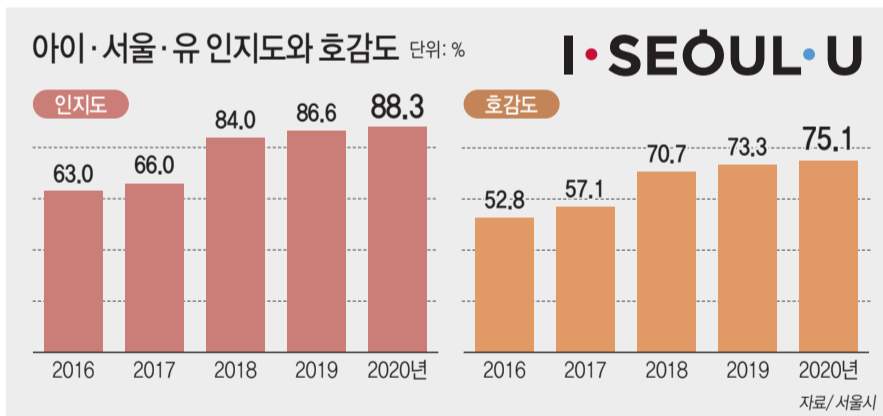
경북공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과 주변 정비사업은 이듬해 상반기 행정 절차에 착수해 정밀 발굴조사를 벌이고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 실시간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한 시민 A씨는 "공사하면 통행도 힘들고 복잡해질 텐데 의도가 의심스럽다. 솔직하게 밝히라. 돈이 없다 하면서 자꾸 일반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는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서 권한대행은 "물론 아직 광화문광장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과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나갈 것"이라며 "완성형이 아닌 진화형의 광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I·SEOUL·U' 도입 5년... 시민 호감도 75%

서울시 자체 브랜드 관련 설문조사 인지도·호감도 전년 대비 2% 상승



서울시는 시민 1500명 대상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자체 브랜드인 'I·SEOUL·U'(아이·서울·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지도와 호감도 모두 전년 대비 약 2%포인트씩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아이·서울·유를 알고 있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1.7%포인트 오른 수치다. 인지도는 2016년 63.0%, 2017년 66.3%, 2018년 84.0%, 2019년 86.6%, 올해 88.3%로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다.

올해 다섯 돌을 맞이한 서울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는 2016년 52.8%에서 2017년 57.1%, 2018년 70.7%, 2019년 73.3%로 지속 상승했다. 금년에는 전년보다 1.8%포인트 오른 75.1%였다.

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아이·서울·유가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고,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서울시와 어울리는 이미지로는 활기차다·역동적이다(56.7%), 현대적이다(53.7%), 다양하다(49.1%), 국제적이다(24.1%), 즐거운도시(19.6%)가 꼽혔다. 시민이 바라는 서울 이미지는 안전하

다(38.4%), 여유롭다(31.3%), 안심할 수 있다(28.8%), 국제적이다(23.6%)였다.

시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서울의 방역시스템을 평가하게 한 결과 '잘하고 있다'가 52.1%로 가장 많았다. '보통이다'(22.9%), '아주 잘하고 있다'(19.6%), '잘못하고 있다'(4.3%), '아주 잘못하고 있다'(1.1%)가 뒤를 이었다.

/김현정 기자

영등포역 확 바뀐다... 휴식·문화 광장 조성

영등포역 전면 공간 어울림광장으로 내년 하반기 공사 시작... 2022년 완공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뉴스

서울 영등포역에 시민을 위한 광장과 공연무대, 휴식공간이 생긴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4시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구·국가철도공단·롯데역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등포역 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행 용도로만 사용되는 영등포역 전면 4375㎡ 공간은 '어울림광장'으로 꾸며진다. 시는 광장 중앙에 문화공연 열 수 있는 스탠딩 무대를 만들 계획이다. 역사로 올라가는 중앙계단은 공연 관람용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폭을 넓힌다. 광장에는 벤치를 놓고 나무를 심어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영등포역 후부 보행공간은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포장을 정비한다. 역사내 롯데백화점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청년

기업가가 운영하는 창업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영등포구는 공사 시행과 운영·관리를 맡는다. 롯데역사는 사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기본·실시 설계로 구상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차량 압류 해제

무효력 차량 10만2748대 대상

경기도가 벌금·과태료 등을 내지 못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의 압류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생계형 체납자가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

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시·군 체납자 10만2642명도 이달 안에 차량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벌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가운데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멸실된 차량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을 말한

다. 두 가지 모두 채권효력이 없다.

도는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에 해당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4 | 해질 / 17:20

11월 17일 (화) 음력 : 10월 3일

수도권 날씨 11 ~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5/19, 동두천 6/20, 가평 3/18, 파주 5/18, 서울 11/19, 양평 6/18, 인천 12/18, 수원 11/20, 용인 11/20, 평택 9/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